

## □ 임고면

### \*고천리

고천리는 지금부터 약600여년전 고려말에 형성되었다고 한다. 고천리의 동쪽 약2km지점에 위치한 고내, 고넛골은 고천리에서 가장 안 골짜기에 있으며 10가구 미만의 각 성이 살고 있다. 그리고 고천리 남서쪽의 고넛골 입구에 위치한 장동, 長才는 골이 기다란 동네이며, 동래 정씨가 많다. 오래 전부터 마을 앞으로 운주산골짜기의 맑은 물이 흘러 고천이라는 지명이 생겼다. 전설에 의하면 어느 해 7월 봉어같이 생긴 작은 산이 운주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별안간 천지가 진동하는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내려 이 산이 홍수에 떠내려와 현재의 고천동에 자리잡았다고 한다. 連脈이 없이 이 산만이 외로이 우뚝 서 있으므로 부래산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고천과 장제로 되었다.

### \*금대리

본터가 가장 일찍 생긴 마을이며 현재 20여가구의 의성 김씨들이 살고 있으며 새터(新基)는 본터 남쪽 약 1km 지점에 있다. 월성 이씨, 성주 이씨, 영천 이씨, 오천 정씨등이 살고 있으며 찜대(蒸大)는 뒷산에 은(銀)을 제련하는 은(銀)점이 있었다고 전하며, 삼(大麻)을 찌끗이라 하여 찜대리라 했다한다.

### \*덕연리

확실한 마을 역사는 알 수 없고 뒷마을에는 영천 이씨와 안동 김씨가 주성이고 30가구 정도 살며 아랫마을에는 영천이씨가 주성이고 50가구 정도 살고 있다. 또한 마을에는 큰 늪이 있으므로 덕연(德淵), 또는 덕소(德沼)라고 불렀다. 순수한 우리말로는 듬비이다. 이 웅덩이는 물이 깊어 한 발이 심해도 좀처럼 마르지 않는다. 덕연과 구계가 합해서 된 마을이다.

### \*매호리

맘실, 심곡은 운천 북쪽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로, 마을 골짜기의 길이가 약 4km이며 옆 통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런 지명이 생겼다. 그리고 동산리는 운천 남쪽에 있는 마을로 위치가 동쪽 산 밑에 있어 이런 지명이 생기게 되었다. 우내, 맘실, 동산이 합해서 된 마을이다.

### \*사리

담골은 신라시대에 감영(監營)이 있었다고 전하며 병자호란때 이 마을 주변에 성을 쌓아 그 안에서 피난을 했다고 하여 담골이라고 칭했다 한다. 옛날에는 경주군 북안면에 속했으며 의성 김씨 50여 가구 정도가 살고 있다. 가정(柯亭)은 숙종(肅宗)때 성가정이란 사람이 살면서 불도로써 사람의 병을 치료하여 덕망을 쌓았다고 하여 이름을 따서 가정이라 하였다고 한다. 감나무골은 감나무가 많아 가을이 되면 빨강계 물든 감나무로 둘러 쌓인 마을 모습이 아름다웠다고 한다. 지금은 감나무는 사라지고 한두 그루의 고목만 있을 따름이다. 가정, 사리, 차리, 우봉으로 되어 있다.

### \*삼매리

조선 영조때 형조참의를 지낸 정중기가 개척한 마을로, 풍수지리설로 볼 때 마을 뒷산은 매화 가지가 뻗어있는 형상이고 앞산은 매화꽃을 향하여 날아드는 형상이라 매곡(梅谷)이라 하는데 3개리가 합쳐서 삼매(三梅)라는 지명이 생겼다.

### \*선원리

선원동의 남쪽 자호천 건너편 들판에 정, 김, 이 세 성씨의 세 가구가 동네를 제일 먼저 형성했는데, 자연부락 명칭을 세각단이라 한다. 선원동 마을의 뒷산 언덕이 고리 모양으로 마을을 감고 있다하여 還臯, 또는 大還이라 하는데 영천내에서 살기 좋은 세곳 "慈川, 還臯, 坪湖"중에 속한다.

### \*수성리

터골은 수성리에서 제일 처음 생긴 자연부락이고, 원터(院基)는 예전에 원이 있었던 곳이며, 배이 터는 曲江 裴氏와 月城 李氏가 마을을 형성한 곳이며, 중리는 수성리 전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곳이며 새마, 신마는 약 75년 전에 새로 생긴 마을이다. 수성리에 위치한 운주산은 산세가 험하여 외적들의 방어에도 유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임진왜란때 金柏岩 장군이 병사를 인솔하여 성을 쌓고 진터를 설치하였다. 따라서 守城이라는 지명도 산성을 쌓고 외적을 방어한데서 유래한다.

### \*양평리

마을 동쪽편의 양암(良岩)·돌빼기 부락에 큰 고인돌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마을의 역사가 무척 오래된 것임을 알 수가 있고, 예전에는 임고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모여 살았을 것이라 추측된다. 돌빼기의 서쪽에 자리잡고 있는 水平은 거목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마을인데, 마을앞에 운주산의 맑은 물이 흘러 일찍부터 들이 형성되었으므로 수평이라는 지명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된다. 새말(新村)은 돌빼기 북쪽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새마을 동네라 불리다가 고인돌이 있는 양암부락과 운주산의 골짜기 물이 흘러가는 수평 부락을 합쳐 양평(良平)이라 하였다. 임진왜란 이전에 경주김씨와 달선배씨들이 처음으로 정주했다고 한다. 수평, 양암, 신평 일부가 합쳐서 되었다.

### \*양항리

포은 정몽주 임고서원 뒤편에 포은 정몽주선생의 선친되시는 일성군의 묘가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나라의 부친상에 대한 예법이 미비하여 백일상을 많이 지냈으나 포은 선생은 19세의 젊은 나이로 3년상의 여묘살이를 했다. 동네사람들은 지극한 효자가 태어났다고 하여 지명을 도일리(道日里)라 했다. 그 후 도일리가 지금의 양항리(良巷里)로 바뀌었는데, 포은 정몽주 임고서원의 교육적 역할과 포은 선생의 효성으로 인하여 선량한 동네가 되었으므로 양항리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것이라 한다.

### \*우항리

굽들(曲坪)은 지형이 굽은 활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인데, 옛날 이 마을에는 아전들이 많이 살았다고 한다. 그리고 連河는 일명 蓮花라고도 불리는데, 동네 앞 못에 연꽃이 많이 피어 생긴 이름이다. 이마을은 조선조 前葉에 황해도 농원군수를 역임하신 朴英孫(1442-1486)의 자손들이 世居해온 마을이다.

### \*평천리

평천리의 동쪽에 있는 부연리(浮蓮里) 마을은 한가운데가 아주 낮아서 마치 연꽃이 떠있는 형상

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고, 북서쪽에 있는 임천(林泉)은 예전에 황기장터인데 주막이 많았고, 숲과 샘이 많아 그런 지명이 생겼다. 그리고 행화촌(杏花村)은 옛날 이 마을에 살구꽃이 만개하여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었으므로 그런 지명이 붙게 되었다.

#### **\* 항강리**

아주 예부터 인류가 정착한 듯하다. 1962년도 경지정리때 돌 화살이 많이 출토되고 근처에 지석묘가 있는 점등을 참고하건대 삼각지대에 가까운 곳이니 필경 예부터 인류가 정착하기에 편리한 곳이다. 조선 인조 당시 임란이 일어나자 향중(鄉中)선비들이 붓을 그만 두고 분연히 일어서 영천성을 전국에서 가장 일찍 복성(復城)하고 그 여세로 경주성을 복성했던 것이다. 의병의 한 분이신 노항 김연(金演) 선생이 전사한 것은 1592년 8월 20일 이었다. 출전하기 전 말하기를 "적이 죽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하고 흰명주 수건에 성명을 써서 허리 속에 띠고 갔다. 순절 후 아들 김취려가 달려가 적시중(積屍中)에서 흰명주에 쓰인 성명에 의하여 시신을 찾아 자양면 귀미에 장사하였다. 선생의 자손들이 근 400여년간 世居해 오는 마을이다. 선생의 충의가 그대로 체재(滯在)되어 그 자손들이 본받으려고 애를 쓴 결과 향내에서도 유명한 마을이 되었다.

#### **\* 효리**

효리의 북동쪽에 있는 솔안 마을은 큰 소나무가 병풍처럼 뽕뽕이 둘러쳐져 있고 그 안에 마을이 있었으므로 그런 지명이 붙었다고 한다. 안태봉(安泰峰)마을은 안태봉산 밑에 있는데, 전란이 벌어졌을 때 어떤 장군이 말을 타고 이 곳을 지나다가 말이 새끼를 낳자 그 태를 이 봉우리에 묻었기 때문에 생긴 지명이다.